

정부, 내년 언론진흥기금 전년比 10% 삭감한 160억 원

<사업비>

“언론의 공공재적 특성 외면” ... 국회서 증액 필요 요구 높아
지발기금은 올해와 비슷한 117억 5,000만 원 책정

정부가 2027년 언론진흥기금(언론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약 10%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영환경 악화로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인 것. 신문협회 회원사는 이번 기금 예산 삭감은 “언론의 공공재적 특성을 외면한 처사”라며, “신문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언론기금 사업비는 160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178억 2,700만 원보다 17억 6,900만 원(9.92%) 줄어든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정부 기금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예산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삭감이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과 독자의 뉴스정보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기금의 규모가 다른 산업 진흥기금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점도 문제로 지

문화·언론·정보통신 관련 기금 규모	
기금명	2027년 예산안
문화예술진흥기금	7,019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5,148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6,153억 원
언론진흥기금	545억 원

적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7,019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5,148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6,153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반면 언론기금은 545억 원에 그친다(표). 기금별 설치 목적과 사업 범위가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과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문제다.

언론기금

2027년 언론기금 사업비는 전년 대비 9.92% 하락한 160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뉴스정보 유통 활성화 사업의 감액 폭이 두드러진다. 해당 사업 예산은 3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 9,800만 원(24.41%) 급감했다. 특히 신문우송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예산 역시 11억 원으로 편성돼 전년보

다 6억 1,100만 원 줄었다. 신문 유통과 구독 지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면서 신문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과 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사업은 57억 1,200만 원으로 5,100만 원 줄었으며, △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도 72억 5,600만 원으로 7억 2,000만 원 감액됐다.

지발기금

2027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는 11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기획취재지원 10억 원 △지역신문제안사업 20억 원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30억 5천만 원 등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감액에 따른 영향 등의 검토를 거쳐 조정하게 된다. 신문업계는 국회를 상대로 언론기금 사업비 삭감이 신문산업과 국민의 정보 접근권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금 예산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표1> 2027년 언론진흥기금 사업비 정부 예산안(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6년(A)	2027년(B)	증감(B-A) (%)
사업비 총계	17,827	16,058	△1,769(△9.92)
□뉴스정보유통활성화(정보접근권확산지원)	4,088	3,090	△998(△24.41)
○공배센터운영지원	174	152	△22(△12.64)
○신문공동수송노선운영	1,533	1,568	35(2.28)
○신문우송비지원	400	-	△400(△100)
○소외계층구독료지원	1,711	1,100	△611(△35.71)
○국제언론교류지원	270	270	-
□뉴스미디어저널리즘신뢰성제고	5,763	5,712	△51(△0.88)
○미디어교육지원	2,863	2,812	△51(△1.78)
○신문윤리심의지원	2,900	2,900	-
○저널리즘교육통합지원	-	-	-
□뉴스미디어디지털혁신지원	7,976	7,256	△720(△9.03)
○뉴스콘텐츠생산지원	4,157	3,933	△224(△5.39)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3,819	3,323	△496(△12.99)

<표2> 2027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정부 예산안(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6년(A)	2027년(B)	증감(B-A) (%)
사업비 총계	11,751	11,750	△1(△0.01)
□지역신문역량지원	7,749	7,748	△1(△0.01)
○기획취재지원	1,000	1,000	-
○지역신문제안사업	2,000	2,000	-
○지역인참여보도	128	128	-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610	1,020	410(67.21)
○지역신문교류지원	150	149	△1(△0.67)
○지역신문모니터링	275	275	-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3,051	3,051	-
○지발위누리집운영	126	126	-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	200	-	△200(△100)
○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	210	-	△210(△100)
□지역공헌활동지원	4,002	4,002	-
○소외계층구독료지원	2,547	2,547	-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1,455	1,455	-

‘2026 신문으로 만나는 K컬처’ NIE 패스포트 592건 접수

수상자 10월 말~11월 초 발표...시상식은 수상자 학교별로 개최

신문협회가 신문활용교육(NIE) 워크북인 ‘2026 신문으로 만나는 K컬처 NIE 패스포트’를 지난 9월 30일까지 공모한 결과, 초등 134건, 중등 169건, 고등 289건 등 총 592건이 접수됐다.

신문협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NIE 워크북을 10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말~11월 초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총 89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대상(3명) 100만 원, 최우수상(3명) 50만 원, 우수

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시상훈격
대상(3명)	초·중·고 각 1명	상금 각 1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우수상(3명)	초·중·고 각 1명	상금 각 50만 원	한국신문협회상
우수상(6명)	초·중·고 각 2명	상금 각 30만 원	
장려상(30명)	초·중·고 각 10명	상금 각 5만 원	
지도 교사상(3명)	초·중·고 교사 각 1명	상금 각 20만 원	
참가상(100명)	초·중·고 100명	각 5천 원 상당 기프트콘	
계	145명	890만 원	

상(6명) 30만 원, 장려상(30명) 5만 원, 지도 교사상(3명) 20만 원, 참가상(100명) 5천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각각 받는다(표).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들이 NIE 워크북에 제시된 △‘한류’

의 탄생 △한국 브랜드의 가치 △지속 가능한 K컬처를 위한 제안 등 12개의 활동과제를 신문 지면이나 신문사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 수행한 후 결과물을 신문협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문협회, ‘신문읽기 캠페인’ 전개

신문협회는 전 회원사와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신문읽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회원사들은 협회가 제작한 신문홍보 광고 ‘알고리즘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5단통 및 9단 21·사진)를 캠페인 기간 동안 지면에 일제히 게재했다.

또한 신문협회는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신문홍보 현수막도 게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뉴스룸 AI 에이전트의 활용과 신뢰 설계

기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에 따라 작업을 계획하고 외부 데이터와 도구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다. 뉴스룸의 AI 활용도 요약·번역 같은 개별 작업에서 자료 수집과 분석, 브리핑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뉴스룸은 ‘어떤 업무를 에이전트에 맡기고, 어느 지점에서 기자가 판단할 것인가’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지난 10월 7일 열린 뉴스테크 이니셔티브의 ‘뉴스룸과 AI 에이전트, 적용 전략과 실습’ 워크숍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건국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한

국온라인신문협회가 함께하며 구글이 후원한 행사에서는 비즈니스 전략, 기술과 거버넌스, 공공데이터 실습, 언론사 사례를 다뤘다. 기자와 기술 전문가가 현장의 업무를 함께 검토하고 적용 조건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었다.

AI 에이전트, 취재 현장으로 확장
실습에서는 전자공시시스템 OpenDART와 국가통계포털 KOSIS를 활용해 취재 질문을 구체화하고 근거 기반 브리핑을 작성하도록 했다. 청년 고용률을 비교할 때는 연령과 기간을, 기업 실적을 살펴볼 때는 회계 기준과 정정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AI 응답과 원자료에 연결한 브리핑을 대조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가 취재가 필요한 해석을 구분하는 과정이 핵심이었다.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도 수치의 의미와 비교 조건,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필요하다.

국내 사례는 에이전트를 뉴스룸에 정착시키는 경로를 보여줬다. 전자신문 ‘ETA’는 기자가 현장의 필요를 정의하고 개발에 참여해 뉴스 수집과 브리핑을 업무에 적용한 사례다. 매경AX는 매일경제의 60년 뉴스 아카이브를 정비해 검색과 해설, 뉴스·증권·경제교육 에이전트로 연결했다. 기사와 자료의 디지털화로 쌓은 자산이 취재를 돕고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지식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업무 효율 넘어 검증과 신뢰 확보해야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려면 기자 개인의 실험을 조직의 역량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시 비교, 출입처 변화 탐지, 과거 기사 탐색처럼 성과를 확인하기 쉬운 업무부터 기자와 개발자가 함께 설계하고 편집 시스템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시제품을 지속적인 서비스로 운영하려면

접근 권한, 비용, 유지보수도 고려해야 한다. ‘AI가 아낀 시간을 더 깊은 취재에 돌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아래 처리 시간과 검증 부담, 오류율, 취재의 질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신뢰는 업무 절차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원자료의 출처와 조회 시점, 계산 과정, 수정 이력을 남기고 취재원 정보의 보호 범위와 단계별 승인 책임을 정해야 한다. AP의 개정 AI 기준에서도 편집 판단과 검증의 책임은 기자에게 남아 있다. 님 디아코폴로스 메릴랜드대 교수가 강조한 인간과 기계의 협업 관점처럼, 저널리즘의 가치를 기술 설계에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

취재 자산 활용에 경쟁력 확보

이러한 뉴스룸의 변화는 신문산업의 유통 환경과도 맞물린다. 이용자가 AI 답변만으로 정보를 얻는 제로클릭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뉴

스 탐색과 요약까지 맡으면 신문사의 독자 접점과 수익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고유한 취재 자산의 활용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검증된 기사와 아카이브를 전문 브리핑·지역 정보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외부 에이전트의 뉴스 이용에는 출처 표시와 적절한 대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뉴스룸의 에이전트 도입은 취재 역량과 신뢰를 높이는 조직적 전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자는 질문과 해석에 집중하고, 기술은 반복 작업과 근거 탐색을 지원하며, 그 성과는 독자에게 유용한 보도와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 공동 교육과 검증 기준, 시행착오를 공유하는 산학협력은 이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각 뉴스룸의 작은 실험이 축적돼 저널리즘의 품질과 신문사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기를 기대한다.

뉴스 활용한 AI에 지불의사 더 높다…최고 가치는 ‘교차검증’

생성형AI 서비스에 뉴스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이용자의 선택과 지불의사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용자들은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교차검증’ 기능에 가장 높은 효용 가치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협회가 올해 실시한 ‘생성형 AI 시대 뉴스의 가치 산정 및 언론사 수익 모델 구축’ 조사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 이번 연구는 이대호 성균관대 인

신문협회, ‘생성형 AI 시대 뉴스의 가치 산정’ 연구 결과

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가 책임 연구를 맡았다. 최종 보고서는 11월 발간한다.

AI 이용자의 효용성 높이는 뉴스 데이터

이번 연구는 이용자의 선택과 지불의사를 통해 뉴스 데이터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실

속성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정보 교차검증	21.2%
출처·근거 제공	17.8%
실시간 정보 반영	17.6%
사전학습 뉴스 포함	13.4%

증분석을 위해 생성형AI 서비스를 이용하는 600명을 대상으로 두 개의 실험을 실시했다. 첫 번째 실험

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①사전학습에 뉴스 포함 ②실시간 뉴스 정보 반영 ③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교차검증 ④출처 및 근거 제공이 이용자의 효용과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위 네 가지 뉴스 관련 속성은 모두 이용자의 효용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 데이터가 AI 서비스에 기여하는 가치를 지불의사로 추정한 결과, △정보 교차검증 △출처·근거 제공 △실시간 정보 반영 △사전학습 뉴스 포함 순으로 지불의사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표) 역시 △정보 교차검증(21.2%) △출처·근거 제공(17.8%) △실시간 정보 반영(17.6%) △사전학습 뉴스 포함(13.4%) 순으로 측정됐다.

저널리즘의 AI 활용 윤리와 자율심의 방안 모색

신문윤리위 ‘저널리즘 윤리 포럼’ 개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는 지난 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6 제2회 저널리즘 윤리포럼’〈사진〉을 개최했다. 서수민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AI 활용 관련 저널리즘 윤리 준칙과 실무 가이드라인’ 주제 발표를 통해 뉴스룸의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정확성과 투명성, 책임성 등 언론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적용 방안을 짚었다. 이어 허만섭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사



형 광고 관련 언론 자율심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에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언론의 자율심의 역할과 개선 방향 등을 다뤘다.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 최

성진 한겨레신문 미디어본부 영상국장,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저널리즘 윤리 기준과 윤리위원회의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기술협, ‘신문 인쇄 기술 혁신 보고서’ 실무자 TF



신문협회 산하 기술협의회(회장 김희준 세계일보제작단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실무자TF〈사진〉회의를 열어, ‘신문 인쇄 기술 혁신 보고서

(가칭)’의 제작 경과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회원사별 운전기 현황, 인쇄 품질 개선 사례 등이며, 올해 말 발간한다.

日 닛케이, 자체 뉴스 아카이브 활용해 기사 관련 질문에 실시간 답변

‘애스크! 닛케이’ 출시…차별화된 데이터 자산으로 활용

국제뉴스미디어연합(INMA)은 지난 9월 15일 일본 닛케이가 자체 아카이브를 활용해 독자 질문에 답하도록 개발한 ‘애스크! 닛케이’ <사진>를 소개했다.

‘애스크! 닛케이’는 50만 건 이상의 닛케이 자체 기사만을 바탕으로 독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기능이다. 독자는 기사 화면에서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은 2024년 1월 개발에 착수해 약 1년간의 테스트를 거쳤으며 유료 구독자에게 제공된다.

닛케이의 독자층은 사회 초년생부터 금융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까지 다양하다. 닛케이는 독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사를 읽으며, 해당 화면에서 관련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애스크! 닛케이를 개발했다. 범용 챗봇보다 답변 범위는 좁지만, 기사를 읽는 과정에서 생긴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질문 후 5초 이내 답변

애스크! 닛케이는 각 기사 아래에 추천 질문 4개를 제시한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지만, 자유질문 입력창을 최소한으로 노출함으로써 질문 입력창을 부각시킨 기존 챗봇과 차별화했다. 실제로 전체 이용의 75%는 이러한 설계에 따라 추천 질문을 선택했다.

추천 질문을 선택하면 0.5초 이내에 답변이 시작되고 5초 이내에 완료된다. 답변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어가 생성되는 대로 즉시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해 독자의 대기 지루함과 이탈률을 낮춘다.

답변이 끝나면 후속 질문 3개가 제시되며, 독자가 직접 질문을 입력할 수도 있다. 모든 답변에는 근거로 활용한 닛케이 기사가 함께 표시되며, 한 번의 클릭으로 해당 기사로 이동할 수 있다. 기사 읽기부터 질문·답변·원문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닛케이 디지털판 웹·앱 안에서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닛케이의 생성형 AI 서비스 ‘애스크! 닛케이’ 이용 화면. 독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닛케이 기사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해 답변한다.

‘LLM’이 아닌 ‘RAG’를 활용한 이유

닛케이는 독자 신뢰를 서비스의 핵심 요건으로 보고,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 학습한 정보가 아닌 RAG(검색 증강 생성) 방식으로 애스크! 닛케이를 설계했다. 특히 모든 답변에 출처를 표시해 독자가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답변 생성에는 범용 LLM을 사용하되, 기사 검색과 재순위화에는 닛케이가 자체 구축한 모델을 활용

한다. 또한 닛케이가 전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추가 운영비용은 닛케이 디지털판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의 1% 미만이며, 검색 모델 개발부터 운영까지 약 5명 규모의 팀이 담당한다.

답변 약 90%, ‘도움이 됐다’고 평가

애스크! 닛케이는 출시 이후 50만 명 이상의 독자가 사용했으며, 유료 구독자 2명 중 1명꼴로 이 기능

을 한 차례 이상 이용했다. 질문은 400만 건 이상 접수됐으며, 개별 답변에 대한 응답자의 약 90%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은 애스크! 닛케이를 업무 자료 준비, 취업 면접 연습, 기사 내용에 대한 심층 이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초·중·고·대학교에 유료 디지털판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애스크! 닛케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사 아카이브 활용해 고도화할 계획

닛케이는 수십 년간 축적한 50만 건 이상의 기사 아카이브를 독자를 위한 정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모델을 개선하고 LLM의 발전에 대응하면서, AI를 활용해 디지털판의 기사 탐색과 독서 경험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적정 보상·지속 협력·콘텐츠 보호

NYT AI 라이선싱 3대 원칙

뉴욕타임스는 AI 콘텐츠 라이선싱 계약시 적정 보상·지속 협력·콘텐츠 보호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한다고 디지데이가 지난 9월 23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전략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인 애덤 그린버그는 “뉴욕

타임스는 이 세 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다. 특히 구독을 핵심 수익 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독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중요

하게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린버그 부사장은 “최근 몇 년간 AI 콘텐츠 라이선싱 환경이 언론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됐다”며,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언론사가 이용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업 및 플랫폼과

NYT AI 라이선싱 3대 원칙	
계약 및 허가	AI 기업이나 기술 플랫폼이 뉴욕타임스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함.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일회성 비용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통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 다른 언론사와 콘텐츠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생태계 조성도 고려함.
콘텐츠 통제권 및 안전장치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고 AI 플랫폼의 어디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뉴욕타임스가 가져야 함.

의 파트너십을 통해 링크·출처 표시·추천 등 언론사 사이트 유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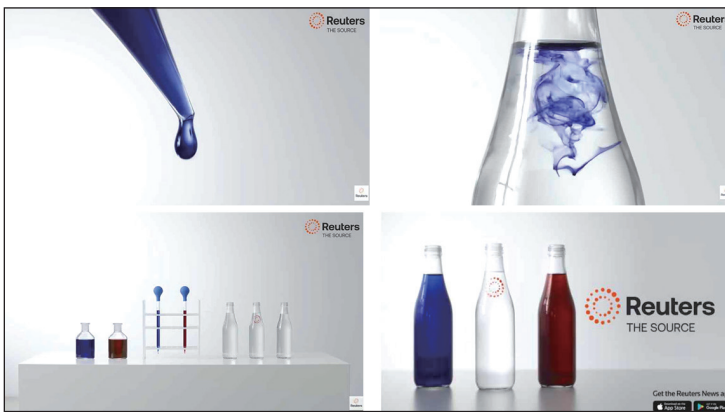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로이터, ‘출처 그대로 전하는 순수한 뉴스’ 캠페인

165개국 2,600여 명 기자의 현장 취재·보도 가치 강조

로이터(Reuters)는 지난 9월 16일 ‘출처 그대로 전하는 순수한 뉴스(Pure News, Straight from the Source)’ 캠페인의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작년 10월 공개한 첫 번째 캠페인에서 로이터는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가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와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첫 번째 캠페인이 뉴스의 정확성이 원출처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번 캠페인은 뉴스가 대



로이터 캠페인 영상 화면

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이 원천(Source)에서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모습을 통해 뉴스 역시 최초 보도된 현장에서 멀어지고 여러 단계를 거칠수록 왜곡될 수 있음을 표현한 것. 로이터는 메시지의 명확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실제 실험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물에 색이 섞이거나 점차 흐려지는 실험을 통해, 뉴스가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원래 내용

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독자가 접하는 많은 정보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가장 원천에 가까운 출처에서 직접 뉴스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로이터는 캠페인에서 165개국에서 활동하는 2,600명 이상의 기자들이 뉴스가 발생한 현장(source)에서 직접 취재·보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검증된 저널리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화된 가치로 제시했다.

“새로운 100년 향해 출발하자”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발행인 박종성)은 지난 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창간 80주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박종성 발행인은 “1946년 창간 이후, 경향신문의 80년

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수많은 순간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독자에게 신뢰받는 언론이 되는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의 존재 이유”라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출발하자”고 강조했다.

“성공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 나서자”

한국경제 창간 62주년 기념식

한국경제(발행인 조일훈)는 지난 12일 본사 다산홀에서 창간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조일훈 발행인은 “올 3분기 누적 기준 신문과 모바일환경 등 한경 콘텐츠를

구독하는 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며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본지는 매출과 수익 및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업계 최고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 “내년 이후 미디어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부심 가져야”

경인일보 창간 81주년 기념식

경인일보(발행인 홍정표)는 지난 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창간 8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홍정표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언론을 둘러싼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디지털과 AI 발전으로 뉴스가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독자와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삼아 경인일보의 100년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속하는 신문, 미래가 있는 신문 만들 것”

영남일보 창간 81주년 기념식

영남일보(발행인 손인락)는 지난 12일 본사에서 창간 8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손인락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최근 본사에서 주관한 ‘2026 글로벌 AI·로봇 해커톤

피지컬 AI 챌린지’에 데니스 홍 UCLA 교수가 특강자로 참여하고 앤비디아가 후원했다”며 “대구경북 제조업의 미래를 바꿀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

으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속하는 신문, 미래가 있는 신문을 만드는 데 구성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파이낸셜뉴스 새 발행인에 송의달 대표이사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8일 새 발행인에 송의달<사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석사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약력 △조선일보 홍콩특파원·디지털뉴스부장·산업1부장·오피니언 에디터·선임기자 △조선비즈 대표이사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 융합전공학부 초빙교수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 사장

경북도민일보 새 발행인에 김신곤 전 영남일보 편집국장



경북도민일보는 지난 12일 새 발행인·대표이사에 김신곤<사진> 전 영남일보 편집국장을 선임했다.

학력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약력 △영남일보 정경부장·정치부장·논설위원·편집국장

회원사 동정

국민일보, ‘2026 국민미래포럼’ 개최

국민일보(발행인 김경호)는 오는 29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2026 국민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혁신과 신성장: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길’이며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의 성공 방정식을 모색한다. 포럼에서는 △기조강연 △특별강연 △주제발표 △토론이 진행된다.

대한경제, ‘2026 대경 커뮤니케이션포럼’ 개최

대한경제(발행인 유일동)는 오는 27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대한경제 커뮤니케이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생성형 AI 확산과 미디어 환경 변화 속, 홍보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주제는 ‘오늘 바로 써먹는 홍보실 AI’이다. 참가대상은 민간·공공 기업 홍보담당 임직원이며 참가 문의는 대한경제신문 마케팅국 포럼 담당자 02-3485-8451.

아주경제, ‘2026 제2회 서울 한강 걷기대회’ 참가자 모집

아주경제(발행인 광영길)는 오는 31일까지 ‘2026 제2회 서울 한강 걷기대회’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5,000명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한강변을 따라 5km를 걷는 순환 코스이다.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기념품, 간식 등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아주경제 홈페이지, 문의는 대회 사무국 02-767-1642.

신문협회보

발행인	박장희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알고리즘이 대세로 변한 지금에도 세상을 읽어내는 신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걸러낸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만나는 방법, 바로 신문입니다.

